

‘제2회 티월드 페스티벌’

우리 차! ‘세계로, 세계로’



김정순 추진위원장

우리나라 차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는 5월 25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로 가보자.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티월드 페스티벌(Tea World Festival, 국제차문화대전)’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차 생산자들과 차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며 동분서주 하고 있는 김정순 추진위원장(47)을 지난 9일 만났다. 그가 그리고 있는 올해 티월드 페스티벌의 밑그림을 들여다본다.



지난해 5월 처음 열린 ‘티월드 페스티벌’은 차 관련 단체 100여 곳이 참가해 전시와 세미나, 차 음식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 1만5천여의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사진제공=티월드 추진위원회



지난해 처음 열린 행사는 국내 최대의 차 박람회이자 차문화 잔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티월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차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차산업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장을 마련해 보자는 뜻으로 2002년 10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차 관련 단체나 생산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흔쾌히 참여해 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 차 축제 한마당을 꾸려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차인들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차문화는 ‘어렵다’, ‘비싸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티월드는 누구나 차를 ‘쉽게’ 마시고 ‘함께’ 차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차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뜻에서 ‘차생활의 모든 것’을 컨셉으로, ‘우리가 생활차’를 슬로건으로 정한 것입니다. 또 차문화와 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과 함께 국내 차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우리 차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사를 평가한다면?

“처음 개최하는 행사라 외형 갖추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쉽고, 함께하는 차문화 보급위해 마련 지난해 홍보 큰 성과, 행사 운영은 미흡 ‘쌍 세대’에 맞는 다양한 공연 준비 ‘차의 날’ 제정으로 국민축제 되길

차문화의 본질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대장치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우리 차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은 스스로도 후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웃음) 그동안 해외에 우리 차 알리기는 차 관련 단체나 차회 차원의 교류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국가 혹은 공인된 기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할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티월드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 차문화를 접해보는 기회를 제공한 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좀 더 다채로운 볼거리와 참여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올해 행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큰 틀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시와 세미나, 제다실습, 이벤트 무대에서의 공연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 인도, 스리랑카 등의 차 생산업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차 비교전시 등도 마련됩니다. 하루 유동인구 15만 명에 달하는 전시장의 특성을 살려 ‘쌍세대(젊은 세대)’들이 차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코엑스몰 공연장에서 차 공연을 열 계획입니다. 또 하나 올해부터는 ‘티 아카데미’를 운영해 일반인들이 차를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인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티월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지요.

“티월드의 목표는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차산업박람회이자 차문화축제의 마당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차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장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죠. 앞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차와 차도구 전시회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차’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루고 싶은 것은 차인들이 힘을 합해 ‘차의 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물의 날’, ‘농업인의 날’처럼 국민이 함께 차를 즐길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차의 날’이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티월드 페스티벌 2004’ 5월 25일부터 6일간 열려

지난해 5월 처음 열린 ‘티월드 페스티벌’은 ‘차문화의 생활화’를 모토로 전국의 차 생산자와 차단체, 다기·다구 생산자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한 차문화 축제였다. 6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1만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이 행사는 산업관과 문화관, 월드관, 교육관 등으로 꾸며졌으며 이 밖에도 학술 심포지엄과 차음식 경연대회, 차음약과 차음 공연, 차예절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02년 10월 꾸려진 ‘티월드 추진위원회’는 최각구 무역진흥기금위원장(前 부총리)이 고문으로,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과 한국차인연합회 박동선 회장,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이사장 등 차 관련 단체장들과 주요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 김정옥 씨, 대한민국도예명장 59-19호 천한봉 씨 등 각계 인사 20여 명이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오는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 열리는 ‘티월드 페스티벌 2004’에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2월 28일까지 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02)6000-8000

현대훼미리도 99만원 VIP 상품 한정모집

99만원으로 콘도고객 - 무료숙박권 22매 선착순 증정

국내레저산업의 선두주자 현대훼미리조트에서 창립 16주년 기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내걸고 알뜰한 레저상품인 VIP 상품을 성황리에 모집중에 있다.

이번 VIP 상품은 업계최초로 보증없이 99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회비까지 면제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흔하지 않은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477실 규모의 설악 현대훼미리 콘도를 비롯해 청평, 평창, 도고, 충주, 해운대, 탁구, 지리산, 경주, 제주, 해외 25곳에 지역 및 메인콘도,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유명 스키장의 리프트권이 최고 25-50% 할인된다. 특히 행사기간중 설악 23평, 청평콘도 무료숙박권 22매를 선착순 한정으로 증정하고 있다. 무료숙박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설악콘도는 설악의 수려한 풍경, 아름다운 외관과 함께 동해의 일출 광경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다.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추억을 만



들며 가족의 행복한 대화의 보급차리로 만들기 위해 현대훼미리콘도가 특별히 심혈을 기울인 곳이다. 미래지향적이고 저렴한 고품격의 VIP 고객에게 맞게 그 내용이 풍성하다.

즉 저렴한 비용으로 홀리데이 하우스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외관 자연친화성, 격조높은 레저문화 현대훼미리콘도만의 고객서비스로 풍부한 내용구성을 고객에게 베푸는 셈이다.

이상품의 가입기간은 5년으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가입은 신용카드 1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여행 및 레저 비용이 증대되는 시기에 많은 비용 절감과 레저생활의 질적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2-549-0415
www.hyundaivip.net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화자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x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直) (02)737-8881(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